

설림

# 일제강점기 청주 여선교사 로간 부인의 교육활동과 그녀의 기념비

전순동\*

- I. 머리말
- II. 미국 켄터키 출신의 여선교사 로간 부인
- III. 청주선교기지 자비량선교사로서의 부임과 여성 교육활동
- IV. 로간 선교사의 서거
- V. 한글비석 ‘로간 부인 기념비’의 건립과 의의
- VI.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의 기독교는 시기와 경로를 고려할 때, 19세기 후반 중국, 일본, 미국 등을 통해 유입되었다. 이는 서양 여러 나라가 아시아에 진출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여러 나라는 19세기 중엽, 먼저 중국과 일본에 문호를 개방시켜 외교관과 상인들을 상주시키고, 더불어 이때를 전후해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전개되었는데, 한국에도 그러한 과정을 밟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조선 말기,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고 척화와 쇄국의 정치체제를 취하던 대원군 시대에는 나라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조선 땅은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 등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가난과 무지에 사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로잡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다.

그러던 중 1882년, 한미통상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은 이후 개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급진적 개화를 주장하는 개화 인사들은 중국, 일본 등의 경험에 따라 서양 선교사들에 힘입어 개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1884년에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1824-1907)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 의사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활동하였고, 1885년에는 미국의 공식적인 첫 선교로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선교사가 들어왔다. 이후 여러 남녀 선교사가 입국하여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이때 조선에서는 급진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 양반 관료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기독교를 수용하는 자세로 나왔다.

그런 관계로 한국의 기독교 수용은 19세기 후반, ‘서양의 충격’과 ‘전통사회의 해체’라는 위기 상황에 부닥치면서 ‘문명의 달성’과 ‘민족 정체성의 유지’라는 이중적과제를 안게 되었다.

급진 개화론자들은 서양의 종교가 서양 문명의 뿌리임을 인식하고, 근대화를 달성하려면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까지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 수용론자들의 관심은 문명의 달성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문명과 종교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그 모델로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독교가 이 민족적 개화와 개혁의 원리 및 에너지를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때에 복음 선교적 사명을 띤 수많은 선교사가 앞다투어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정든 가족을 떠나,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을 향해 긴 항해를 거쳐 내한하였다.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한국을 찾아온 열정적인 목사, 의사, 간호사, 교육자 등 많은 선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녀들도 질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귀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맞기도 했다.

이들 선교사가 본국에서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의 한국 땅을 찾은 것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때문이었다. 이국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출세를 포기하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것이다.

복음과 함께 실려 들어온 서양 근대 문물, 곧 근대교육, 의학, 정치, 문화, 예술, 체육 등은 은둔의 나라 조선에 문명개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고,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충북의 선교 역사에도 적용된다. 충북선교의 대부라 불리는 민노아(閔老雅, 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 선교사<sup>1)</sup>를 비롯한 수많은 남녀 선교사들 역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붙들고, 한국을 사랑하고 충북인의 구원을 위해, 충북 근대화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다.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기지가 있던 청주에는 근 50명에 이르는 남녀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선배 신앙인들과 함께 충북 땅에 예배당을 세우고, 충북인의 문명개화를 위해 헌신하며 오늘의 충북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

청주에는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기지 유적과 유물이 잘 남아 있다. 예배당으로는 청주제일교회, 학교로는 청남학교, 병원으로는 소민병원(던컨기념병원), 선교사 사택으로는 흔히 ‘양관’ 이라고 불리는 서양식 건물이 남아 있다. 곧 포사이드기념관, 노두의 기념관(매클링기념성경학원), 민노아 기념관, 부레선 기념 성경학원, 소열도 기념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동산에서 물이 나온다 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최초의 우물인 코핀 우물, 선교사 묘지, 로간 부인 기념비 등도 유물로서 잘 남아 있다.

---

1) 민노아(閔老雅, 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 선교사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한자로는 閔老雅, 閔老亞, 閔魯雅, 閔魯亞, 閔挪亞, 密老亞 등이 보이고, 한글로는 민노아, 민로아, 밀노아, 밀러, 민너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북인들에게 익히 불리워지던 ‘민노아’ 로 통일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여러 유물과 유적 중, 1921년에 건립된 로간 여성교사(J. V. Logan, Mary Lee Logan, 1856.9.17.~1919.12.7., 청주 주재 1909~1919) 기념비인 ‘로간 부인 기념비’에 관한 내용이다<sup>2)</sup>. 로간 부인 기념비는 단순한 한 선교사의 기념비라는 유물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기념비가 갖는 의미, 정신, 시대상을 규명하고 그 안에서 역사를 읽고, 오늘의 역사와 접목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빠지게 된다면, 그 기념비는 단순한 돌비에 그치고, 그 기념비의 관리자 내지는 관련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덕주 교수는 『기독교 사상』에 “충청도 선비들의 믿음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1997년 10월호에 처음으로 ‘로간 부인 기념비’를 소개하였다. 그 후 본 필자가 “일제기 청주지역 기독교와 교육활동” 『인문학지』(충북대) 18집(1999)에서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를 다루었다. 이후 필자가 지은 『충북기독교백년사』(2002)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로간 부인 기념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데서 그런지, 세인들의 관심밖에 머물러 있었다. 충북 근대 여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로간 선교사의 한국인 사랑과 충북 여성 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냥 묻힌 채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로간 부인 기념비’가 ‘충북노회 105년사’<sup>3)</sup>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기회만 있으면 필자가 로간 부인 기념비를 소개하였다.<sup>4)</sup>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로간 선교사에 관한 관심이 고

---

2) 여성교사 로간 부인의 처음 이름은 ‘Mary Lee Jones’ 이고,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의 이름은 남편의 성씨를 따라 ‘J. V. Logan’ 이라 불렸으며, 묘지에 적혀 있는 이름은 ‘Mary Lee Logan’ 이다.

3) 전순동, 2018, 『한반도 중심에 심겨진 복음, 충북노회 105년사』.

4) 2022년 10월 9일에 ‘문화사랑모임과 충북대국어문화원’ 주최, ‘충청북도 교육청 후원’으로, “훈민정음 576주년 한글날 기념식 및 문화제”가 문화제조창에서 열렸다. 그때 발표자는 “근당 최창남 선생과 한글운동”을 발표하였다. 이때 한글 비석인 로간 부인 기념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2023년 2월 24일에 우민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원포럼 제167회 학술발표회’에서 “청주와 한글, 그 인물·유적·유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때 청주와 한글을 관련하여 발표하면서 한글과 관련된 인물, 유적, 유물을 소개하였는데, 인물로는 충북 최초의 한글운동가 ‘최창남 선생’,

조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로간 선교사의 묘지는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에 있는데, 지난해 여름 10월, 그곳에 있는 로간 부인 묘비를 본떠 일신학원 내의 '선교사 묘지 동산'에 세움으로써 옛 로간 선교사의 충복 사랑과 여성 교육에 대한 희생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sup>5)</sup> 기독교 여성 교육의 요람인 일신학원에서는 로간 부인이 지닌 여성 교육의 아름다움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구내의 선교사 묘지 동산에 세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자청하여 나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어서 일신학원 구내에 세워지게 되었다.

더욱이 청주시는 올(2023) 5월 25일에 청주제일교회 내에 있는 '로간 부인 기념비'를 '향토유형유적 제165호'로 지정하였다.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는 점과 더불어 근대적 사상을 담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정신이 잘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형 유적으로

---

유적으로는 '초청 행궁', 유물로는 '로간 부인 기념비'를 소개하면서 특히 최초의 한글 비석인 로간부인 기념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 5) 2021년 8월, '상당교회 여름수련회' 기간에 강사로 나선 이용남 선교사는 목숨 바쳐 헌신한 청주 선교사들에 관한 감동적인 얘기를 열정적으로 전하였다. 열강하던 이용남 선교사는 청중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것은 오로지 충복 근대화 및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가 과로로 발병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난 로간 부인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잠들고 있으나 실은 청주·충북인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고, 충북인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라 불리던 여선교사이니, "시신은 양화진에 있다 하더라도 묘지 앞에 있는 묘비석 만이라도 똑같이 만들어 청주에 와 있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호소하였다.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청주와 충북을 위해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녀의 묘비석만이라도 똑같이 만들어 청주에 옮겨 세워, 청주 사람들이 자애로운 로간 부인의 충복 사랑과 헌신을 바로 알게 함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며 선교사 로간 부인의 묘비 제작 건립을 제안하였다. 이용남 선교사의 제안에 감화된 상당교회 한 여성도가 선뜻 그 제안에 응하여 자원하여 무명으로 거액을 후원하였다. 그 후원금으로 묘비석의 모형 제작과 이전 건립에 들어가는 일체 경비를 다 충당하였다. 이로써 로간 부인의 묘비 복제품이 지난해 10월에 일신학원 내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 동산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미담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정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로간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사로 청주에 오게 된 배경, 로간 선교사의 역할, 로간 부인 기념비의 존재 경위, 그 의의와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로간 부인 기념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 기념비의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최근 청주시 탑동 양관의 기독교 유적 유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로간 부인 기념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역사와 더불어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 발현에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 생각한다.

## Ⅱ. 미국 켄터키 출신의 로간 선교사

여성교사 로간 부인은 켄터키 사람이며 명문가 출신이다. 그녀는 켄터키 리치먼드(Richmond)에서 뉴랜드 존스(Newland Jones, 1825-1893)와 메리 페이트(Mary Jane Feyton, 1830-1901) 사이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첫 이름은 메리(Mary Lee Jones)라 불렸다.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켄터키주 리치먼드와 그 주변에서 보냈다.

그는 미국 독립 혁명(1775-1783)에 참여한 가문의 딸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며, 자연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 그녀의 몸에 배어있었다.

‘메리’라 불리던 유년 시절, 그녀의 학교 선생님 중 한 분도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한번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편지 쓰기를 가르쳤다.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란 말을 시작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는데, 그 편지를 본 선생님은 “네가 이렇게 쓴 것은 정말이니? 내가 너한테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니? 마음에 없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 말을 기억

하면서 ‘진실함’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고 생활하였다고 한다.<sup>6)</sup>

18세(1874)에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스무 살이나 많은 리치먼드의 헨던(James Pollock Herndon, 1835~1891)과 결혼하고 메리 헨던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했다. 남편은 약사이며 또한 열렬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35세이던 1891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녀는 젊은 나이에 미망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그녀(메리 헨던)는 자기 삶을 젊은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켄터키의 젊은 청년들, 특히 리치먼드에 있는 센트럴 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독교 전파에 노력하였다. 그녀는 Y.M.C.A.와 Y.W.C.A.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집에서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었고,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메리 헨던은 4년간 독신으로 살던 중 1895년에 리치먼드에 있는 켄터키 센트럴대학교 총장이고 목사 신분으로 활동하던 스무 살 연상의 로간(James Venable Logan, 1835~1908) 박사를 만나 재혼하였다.<sup>7)</sup> 로간 박사 역시 첫 번째 부인 마티 맥브레이어(Mattie McBrayer)가 세 딸과 두 아들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나 홀로 살고 있었기에 메리 헨던 여사는 로간 박사와 재혼하였다. 남편은 자기

6) Edwin Kagin, 1920. 2, "In Memory of Mrs. J. V. Logan", *The Korea Mission Field* p.38.

7) 로간 부인의 남편, 제임스 베너블 로건은 장로교 목사이자 대학교수이다. 1880년부터 1901년까지 켄터키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센트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였다. 로간은 1835년 7월 11일에 켄터키 주 스콧(Scott) 카운티에서 태어났으며 센터 칼리지를 졸업 후, 1860년에 덴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는 1860년부터 1868년까지 켄터키주 해로즈버그(Harrodsburg) 제일장로교회 목사로 사역하였다. 1868년에 켄터키주 루이빌의 'Free Christian Commonwealth, 자유기독교연방' 잡지의 편집장으로 활약하였고, 센트럴 대학교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1876년에 센트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철학, 윤리학, 법학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1880년에는 대학 총장이 되었다. 1901년에 켄터키 센트럴 대학교와 켄터키 센터 College가 통합된 후에는 1908년 7월 은퇴까지 철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로간 부인과 함께 여름 여행 중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1908년에 미네소타주의 몬티첼로에서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로간 부인의 남편은 경력이 화려한 인물이었다.

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고, 로간 부인 자신을 존중해주었기에 그와 재혼한 것이다. 로간 부인은 이전, 이후 두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와 인생의 참된 철학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며, 고귀한 두 남편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8)</sup> 사람들은 그녀의 결혼생활에 불운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그녀는 자신의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내다 보았다. 이를 보면 로간 선교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1901년에 센트럴 대학교와 센터 College가 통합하고 그 본부를 캔터키주 덴빌(Danville)에 두었는데, 로간 박사 부부는 덴빌로 이사하였다. 로간 부인은 그곳에서도 남녀 기독교청년회를 지도하고, 사회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청년운동을 지원하였다. 캠퍼스에서 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목포의 유진 벨(Eugene Bell, 襄裕社) 선교사, 군산의 오궁선(吳尙善) 목사, 청주의 계군(桂君, Edwin Kagin)<sup>9)</sup> 선교사들은 이 당시 로간 부인의 지도를 받

8) Edwin Kagin, 1920. 2, "In Memory of Mrs. J. V. Logan", *The Korea Mission Field* p.38.

9) 계군(桂君, Edwin H. Kagin, 1879~1975, 청주 주재 1907~1921) 선교사는 미국 캔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미국 북 장로회 선교사로 1907년 8월 30일에 내한하여 충북 청주 선교부에 부임했다. 그는 민노야 목사, 국유치 목사와 함께 청주 및 충북 지역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3인 목사가 충북의 농촌 지역을 세 개의 순회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담당하였는데, 계군 목사는 충북 동편 지방의 교회, 곧 영동교회, 주풍명교회, 청산교회, 괴산읍교회, 괴산 송면교회 등을 순회 지도하며 농촌 복음 선교를 위해 진력했다. 그는 청남학교 교장으로 헌신하였고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며 가르쳤다. 청주 장날이면 장터에 나가 영어로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이 모이면 한국인 조사가 쪽 복음 성경을 팔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그런 식으로 1년간 성경을 6천 권이나 판매했다. 1911년 7월에는 청주에 대홍수가 나서 청주 시내가 물에 잠겼을 때 계군 선교사는 퍼비언스 박사와 함께 탐동 언덕으로 피난 온 이재민 200여 명을 선교부 내 양관에 수용하여 구호 활동을 폈다. 이 일로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청주읍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었다. 독신인 그는 1914년 12월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존스턴(Mary F. Johnston)과 결혼하였다. 부인 존스턴은 1908년 미남감리회 여성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하여 개성의 미리혹여학교 교장을 역임한 선교사

으며 대학 생활을 보내었던 학생들이다.

### Ⅲ. 청주선교기지 자비량 선교사로서의 부임과 여성교육활동

로간 부인은 켄터키 센트럴 대학교에서 봉사할 때부터 해외 선교에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언젠가 외국에서 자신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종종 하였다. 로간 부인은 정식 선교사로 허락받기 전에 이미 1907년에 처음 목포 땅을 밟았다. 켄터키 대학교에서 잘 따르던 유진 벨 선교사가 목포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목포를 찾게 된 것이다. 그 후 귀국하여 1908년 여름, 남편과 함께 위스콘신주와 미네소타주 호숫가를 돌며 휴가를 즐기던 중, 남편 로간 박사가 심장병으로 미네소타주의 몬티첼로에서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는 로간 부인, 그리고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세 딸과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로간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켄터키 리치먼드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

로간 박사가 죽은 후 로간 부인은 평소 소망했던 해외 선교사의 길

---

인데, 계군 목사와 결혼한 후, 미국 복장로회 선교사로서 임명을 받고, 1915년 1월에 남편과 함께 청주선교부에 부임했다. 그녀는 주로 청주읍교회 주일학교와 부인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펼쳐 나갔으며 청신여학교 교사로 헌신하였다. 그녀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였는데, 한국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계군 목사는 어쩔 수 없이 1921년 1월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부인과 함께 본국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 치료 받아 부인의 건강은 회복되었으나 선교사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계군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프린스턴 대학 석사, 프린스턴신학교 신학석사를 거쳐 보스턴대학에서 종교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매칼리스트대학 종교학부 교수로 봉직하였다. 그는 1975년 7월 29일에 세인트폴에서 96세로 생을 마쳤다. 1907년에 부임하여 1921년에 청주를 떠날 때까지 충북 선교 초기에 청주읍교회와 보은, 옥천, 영동 지방의 여러 교회를 보살피며, 농촌 지방의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이다.

을 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일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은둔의 땅 한국을 택하였다. 그녀와 친분이 있는 유진 벨, 포사이드(W. H. Forsythe 保衛廉), 오공선, 그리고 계군 선교사 등 몇몇 사람이 한국에서 헌신하고 있었기에 선교지로 한국을 택한 것이다.

그녀는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선교사로 일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사회에 관례에 따라 한국 선교부에 자문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으며 승낙을 기다리던 중, 목포에서 활동하던 포사이드 박사의 도움으로, 승낙이 나기 전에 먼저 미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하였다. 허락 회신을 받기 전인 1909년 3월에 목포에 도착했다. 옛날 센트럴대학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미국 남장로교 유진 벨 선교사와 군산 출신의 의사 오공선 목사의 환대를 받으며 생활하였다. 그녀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정식 선교사로 임명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목포와 광주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다. 목포와 광주에서 몇 달을 보내고 있는 중,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그녀를 한국 선교회의 준 선교사(Associate Missionary)로 허락하였다.

이후 로간 부인은 목포·광주에서 청주선교부로 옮겨왔다. 광주에 머물고 있을 때, 한국어와 지방 사투리가 서툴러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으나, 결정적으로는 대학 시절에 로간 선교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청주 선교부의 계군 선교사의 요청이 크게 주효하였다. 계군 선교사는 그녀가 청주 선교부에서 사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

1909년 가을, 로간 부인은 청주선교부의 초청을 받아 목포·광주를 떠나 청주선교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간 켄터키의 젊은 학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그녀가 이제 선교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고 전도하는 자비량(自備糧) 선교사로서 청주선교부에 부임(1909~1919)하였다.

로간 부인과 계군 선교사와의 만남은 이렇다. 로간 부인이 덴빌의 센트럴 대학교에서 YMCA와 YWCA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계

군 선교사는 이 대학의 학생이었다. 계군 선교사는 대학 2년생으로 YMCA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로간 선교사를 만났다. 계군 선교사가 YMCA 동아리 회장으로서 YMCA 회관을 꾸미려 노력하고 있었다. 교수들과 친구들의 협력을 구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회관을 꾸미려 애쓰는 계군 선교사의 활동에 무관심하며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였기에 그는 실망에 쌓여 있었다. 그때 계군 선교사는 로간 여사를 찾아갔다. 로간 여사는 계군 학생의 활동 계획을 자세히 경청한 후, 비용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협력하였다. 회관을 꾸미는데 소요되는 전 비용을 그녀가 스스로 부담해 주었다<sup>10)</sup>. 그때부터 로간 부인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 온 계군 선교사는 광주 목포에서 활동하던 그녀를 청주로 모셔 온 것이다.

과거 은혜를 입은 계군 선교사는 로간 부인을 잘 모시었고, 로간 부인 역시 계군 선교사를 아끼며 자별한 관계에 있었다. 청주읍교회 최초의 한국인 박정찬 목사는 1911년에 『예수교회보』에 로간 선교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미국서 전도하러 나오신 로간 선교사는 계군 목사와 자모(慈母) 되시는 노인이신데 계군 목사를 친자같이 사랑하여 지냈는데 조선에 나온 지는 불과 3년이라.<sup>11)</sup>

10) Edwin Kagin, 1920. 2, "In Memory of Mrs. J. V. Logan" *The Korea Mission Field* pp.38-39. 「나는 덴빌에 있는 센트럴 대학에서 처음으로 로간 부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대학 2학년생이었고 Y.M.C.A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Y.M.C.A. 동아리 방에 도배를 새로 하고, 카펫도 깔고, 책, 잡지 등을 비치하여 학생회를 협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기관의 교수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나의 계획에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상의하러 로간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로간 부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고칩시다." 라고 말하고, 모든 비용을 로간 부인이 스스로 부담해 주었습니다.」

11) 『예수교회보』(1911. 3. 21.)

이를 보면 로간 부인과 계군 목사 사이는 센터키 동향 사람이기는 하나, 모자 관계라 할 만큼 서로 자별한 사이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무렵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규 선교사로 임명되어 보수와 재정 지원을 선교부에서 받으며 활동하였다. 하지만 로간 부인은 선교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비량 선교사였다.

그것도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해리 로즈(Harry A. Rhodes)와 캠벨(Archibald Campbell)이 편집하여 엮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역사(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제2권(1935-1959)의 437쪽에, ‘선교사 일람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25명의 협력선교사(Affiliated Member)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로간 여성교사는 협력선교사 ‘제1호’로 되어 있다. 이곳의 협력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선교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른바 독립적인 자비량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니, 1909년에 내한한 그녀는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라 할 수 있다.<sup>12)</sup>

로간 부인은 청주에 왔을 때, 그녀의 나이 53세였다. 그녀는 그 많은 나이에도 집요하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한국말을 잘 구사하고, 글씨도 또박또박 예쁘게 잘 썼다. 로간 부인이 사망했을 때 선교회 모임에서 행한 약력 소개에서도 그녀의 언어 능력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언어를 아주 잘 습득하여 여러 해 동안 매우 훌륭하게 사역하였습니다. 그녀는 청주의 인근 마을에서 여성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모인 여러 성경공부반에서 일주일에 15시간씩 가르쳤으며 50명 혹은 60명 여성이 참석하였습니다.”<sup>13)</sup>

12) 해리 로즈(Harry A. Rhodes) and 캠벨(Archibald Campbell), Editors,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I, 1935-1959*(1984), p.437. 이곳의 Harry A. Rhodes(해리 로즈)의 한국 이름은 노해리(魯解理)이고, Archibald Campbell의 한국 이름은 감부열(甘富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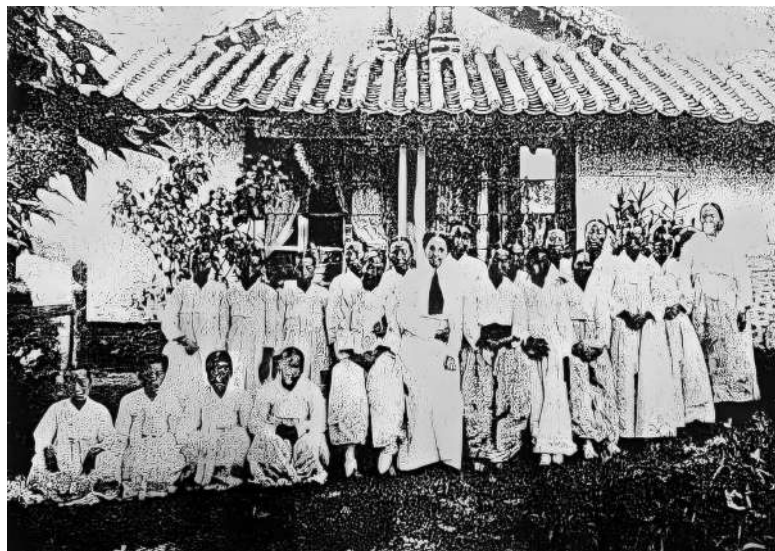
13)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Vol.1(1884-1934), p.311

이것은 그녀의 언어 실력과 활달한 언어 소통으로 여성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녀의 언어 실력은 시골 농촌 여성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는 농촌 순회 사역자로, 호별 방문 전도자로, 많은 여성들을 찾아가 전도하며 충북의 농촌 선교와 여성 교육에 헌신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반, 여성 전도반, 여성 지도자반 등을 지도하고 육성하면서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내었다. 그녀는 민노아 선교사 부인 도티 여사와 함께 청주지역 여성 교육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로간 부인은 정규 선교사가 아니었기에 선교본부에 보고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지 부인 성경반에서 가르치며 자신이 살던 집 양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다만 청주선교기지 선교사들이 매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보낸 연례보고서에 로간 부인에 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녀의 활동을 알 수 있다.

1915년의 보고서를 보면, 로간 부인은 청주읍교회에서 부인반을 운



영하면서도 틈내어 시골 농촌 지역에 나가 성경학교를 개설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로간 선교사는 한 시골 마을에 이교도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sup>14)</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농촌의 어린이들은 이색적인 외국 선교사가 동네를 방문하고 한국말도 구수하게 하자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이 농촌 마을에 어린이를 모아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운 것이다. 1916년의 보고서에도 로간 부인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크리스천들이 (청주읍교회) 예배당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문으로는 여자들이, 저쪽 문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려고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당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배당 중앙에 커튼을 쳐서 남녀의 좌석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혼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보러 때 지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청주에 들어와 머물게 된 데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후 당신은 어른 121명과 청소년들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주일학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에는 부녀자 112명이 만나서 로간 부인의 지도하에서 교사 16명으로부터 공부합니다. 남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부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일 오후에는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와 읍내 주변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교회 여성들을 위한 부인 사경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청주선교부의 여선교사들이 참여하여 가르치는데, 지난번에도 6일 동안 이뤄진 사경회에 부인 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한 차례의 사경회가 열렸는데, 목사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 사경회에는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충청노회가 청주읍교회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는 청주읍교회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큰 잔치

---

14) *Annual Report of the Mission St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15.

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주읍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0마일 이상을 걸어왔습니다.”<sup>15)</sup>

이 기록은 교회의 정규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이 남아서 로간 부인의 지도하에 다시 성경을 공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배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부녀자들이 로간 부인의 지도하에 16명의 교사와 함께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남성들이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 유별의 유교문화가 잔존하고 있던 당시라, 교회에는 예배당 한가운데에 커튼을 쳐서 남녀의 좌석을 구분하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

1917년 연례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청주읍교회에는 계군 목사와 황(준국) 목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해 36명이 세례를 받았고, 56명이 학습교인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1,132.99원에 이르렀습니다. 장년 남자 주일학교 평균 출석은 96명이며 이들은 9개 반으로 편성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년 주일학교는 평균 53명이 모입니다. 로간 부인은 여성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5개 학급에 평균 129명이 참석합니다. 초등 주일학교는 국유치(鞠裕致, Welling Thomas Cook) 부인인 모드 험필 쿡(Maud Hemphill Cook) 여사가 1917년 교회를 떠날 때까지 담당하였고, 이후에는 도티 여사가 담당하였는데, 평균 6개 학급에 129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청주읍교회는 주변 마을에 불신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마을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는 300명 이상입니다.”<sup>16)</sup>

이를 보면, 청주읍교회에는 민노아 선교사, 계군 선교사, 국유치 선

15) *Annual Report of the Mission St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hungju Station" 1916.*

16) *Annual Report of the Mission St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hungju Station" 1917.*

교사, 그리고 청주읍교회 3대 목사인 황준국 목사가 계군 선교사의 동사 목사로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모두 교육에 힘을 쏟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때 로간 부인은 여성 주일학교와 교사 교육 등 여성 중심반 팀을 담당하며 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로간 부인이 지도하는 그룹에 많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장년 남자 주일학교 평균 출석은 96명(9개 반으로 편성)이었고, 소년 주일학교는 평균 53명이 참석하였는데, 로간 부인이 담당한 여성주일학교와 교사 교육 팀에는 평균 129명(15개 학급)이 참석할 정도로 여성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1918년의 연례보고서에도 로간 선교사를 통한 청주읍교회 복음 사역이 잘 보인다.

“교회 담임 목사는 황목사와 계군 목사입니다. 세례교인은 총 203명이고 학습교인은 109명입니다. 4개 부의 주일학교가 있는데, 초등부 주일학교는 도티 여사가 지도하고 있으며 평균 출석 111명에 교사 9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군 목사가 담당하는 소년주일학교는 평균 출석 48명이고,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치루기도 하였는데, 소년주일학교는 5명의 교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로간 선교사가 담당하는 여자주일학교는 평균 출석 138명이고 교사는 15명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요리문답’입니다. 몇 명의 성인과 소년을 포함한 50명이 요리문답 중급반에에서 암송하고 있고, 여성 암송자 중 한 여성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황 목사가 지도하는 장년 남자 주일학교는 평균 93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교사가 10명입니다. 계군 목사의 지도하에 10개의 전도주일학교(확장주일학교)가 있으며 청주읍교회 청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균 269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청주읍교회 주일학교 총 인원은 750명이고 평균 659명이 출석합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는 교사는 45명입니다. 여전도회와 청년회는 다 같이 전도인을 파송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sup>17)</sup>

---

17) *Annual Report of the Mission St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hungju Station” 1918.*

위의 기록은 1918년 경 당시 청주읍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담임 목사 : 계군 목사(미국인), 황준국 목사(한국인)
- 교회 세례교인 총 203명, 학습 교인은 109명
- 초등부 주일학교 : 담당 지도자 도티 여사, 평균 출석 111명, 교사 9명
- 소년주일학교 : 담당 지도자 계군 목사, 평균 출석 48명, 교사 5명
- 여자주일학교 : 담당 지도자 로간 선교사, 평균 출석 138명, 교사 15명 (\*로간 선교사는 ‘요리문답’ 암송반 운영)
- 남자주일학교 : 담당 지도자 황준국 목사, 평균 출석 93명, 교사 10명
- 전도주일학교(확장주일학교) : 담당자 계군 목사, 10개의 전도주일학교, 평균 269명, 교사 청주읍교회 청년들
- 청주읍교회 주일학교 총 인원 750명, 평균 659명 출석, 교사 45명

이 교회 상황과 로간 선교사의 교육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평균 130여 명이 넘는 여자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15명의 교사의 도움으로 여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1918~19년의 계군 선교사의 보고에도, “남성 주일학교는 김씨가 지도하였는데, 평균 7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간 선교사가 담당한 여성주일학교는 많은 불신자가 참석하였는데, 평균 참석자가 110명이었습니다. 남자 어린이 주일학교는 계군 목사가 담당하였는데, 30명이 참석하였고, 도티 여사가 담당한 기초반 주일학교에는 104명이 등록하였습니다”<sup>18)</sup> 기록하고 있다. 로간 선교사의 여성 교육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920년의 연례 보고에도 여성 교육을 위한 로간 부인의 활동이 보인다.

“청주읍에서 로간 선교사는 여성들을 위해 한 주간에 4개의 반을 운영했으며 그녀의 여전도인을 통하여 각 호별방문하여 전도하

---

18) Edwin Kagin, Personal Report *Korea Mission Materials of the PCUSA (1911-1954)* (1919. 10. 3)

도록 하였습니다. 민노아 부인 도티 여사는 초등 주일학교 교사 양성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에는 맥키(Mckee) 양이 시골교회 여성반을 방문하며 6주간을 보냈습니다.”<sup>19)</sup>

위의 1920년의 보고는 로간 부인이 별세한 후의 일이지는 하나 거기에는 1919년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에, 1919년의 로간 부인의 활동 상황이 나타나 있다. 몸이 약해진 로간 부인은 소민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도 한 주간에 4개의 여성반을 지도하고 있었고, 1919년 가을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도록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종전대로 교육에 힘쓰고 있었음이 보인다.

이상을 보면, 로간 부인은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여성 교육의 중심 반인 여성주일학교반, 그리고 여름 지도자반, 겨울 성경반, 여자 성경반, 특히 교사 양성 및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도자반, 요리문답반 등을 담당하여 교육과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지도자반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한 신문화와외의 접촉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함과 동시에 사회진출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여성의 지도력을 신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훈련받은 여성들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의 선각자적인 역할을 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사의 역량과 복음 사역의 효율성을 문밖에 늘어서 있는 신발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평가한다고 한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로간 부인은 매우 효율적인 선교사였다. 로간 부인의 집 문밖에는 한국인의 신발이 어떤 때는 10켤레, 어떤 때는 20켤레, 그리고 어떤 때는 40켤레가 놓여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신발 수는 그녀의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잘 보여 주는 판단 기준이 되었고, 매우 유능한 선교사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로간 부인을 찾아오는 여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경말씀을 배우러

---

19) *Annual Report of the Mission St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hungju Station" 1920.*

왔고,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기 위해 왔으며, 또 어떤 사람은 신세타령 하러 오기도 했는데, 로간 부인은 이들을 친절히 맞아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에서 매주 15시간씩 성경공부반을 인도할 정도로 열심이었다.<sup>20)</sup>

로간 부인은 탐동 양관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33-5호(로위 기념관)에 거주하며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집 앞 창문 앞에 앉아,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 여성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계군 선교사는 로간 부인을 추모하는 글에서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의 참 좋은 친구였는가를 표현하고자 미국 시인 샘 월터 포스(Sam Walter Foss, 1858-1911)가 지은 “Let me live by the side of the road (길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시를 소개하였다. 이 시(詩)야말로 로간 선교사를 표현하는 데 아주 적절하다며 그 시의 한 연을 읊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집에서 길가에 있는 것을 본다.  
인생 삶의 여정을 바라본다.  
희망의 열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싸움으로 기진맥진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미소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  
무한한 계획의 두 부분 모두를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 사람과 친구가 되게 해 주세요.<sup>21)</sup>

20) Edwin Kagin, 1920. 2, “In Memory of Mrs. J. V. Logan”, *The Korea Mission Field*, pp.38-39.

21) 위와 같음. “Let me live in a house by the side of the road” I see from my house by the side of the road/By the side of the wayfarer of life,/The men who pass with the ardor of hope,/The men who are faint with the strife,/But I turn not away from their smiles /Nor their tears, both parts of an infinite plan;/Let me live in my house by the side of the

로간 부인의 집은 교육 장소만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가치관, 특히 기독교 신앙을 넘어 근대적 의식과 교양을 지역에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자기 집 창가에 앉아 심신이 고달픈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싶었으니, 그녀의 집은 영적, 육적으로 고달픈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로간 부인은 언제나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민노아 선교사의 부인 도티 여사와 함께 청주지역 여성 교육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남녀 내외가 심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남자 선교사가 여성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교사는 규방을 찾아가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그렇기에 로간 부인은 교회 여성 교육의 중심에 서서 활동하고, 전도인들과 함께 호별 방문으로 여성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틈이 있으면 시골 농촌으로 들어가 전도하면서 여성의 근대 의식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런 점에서 로간 부인은 이 지역 근대 여성 교육을 논할 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이다.

#### IV. 로간 선교사의 서거

로간 선교사는 인생 황혼기에 본토 친척, 친구를 떠나 한국을 찾아와 몽매한 한국인을 구원하기 위해 참된 신앙과 불타는 열정으로 교육과 선교에 온 힘을 기울였다.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하고, 믿는 자들의 영혼이 바위에 부딪혀 좌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한국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sup>22)</sup> 특히

---

road,/And be a friend to man

22) Mrs F.S.Miller & Edwin Kagin “Resolution on the death of Mrs J. V Logan” PCUSA Board of Foreign Mission, Korea Mission Report(1903-1957) (1920. 4. 2 접수) 「로간 부인의 서거 앞에서 다짐한 결의 :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자신의 종이자 우리의 동료 사역자인 로간 부인을

청주 읍내에서 많은 시간 가르치고, 농촌 지역의 많은 여성들을 찾아가 전도하여 여성의 근대 의식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그에게는 피로가 축적되었다.

그는 소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여성 주일학교와 수요 교사 지도자반 등을 청주읍교회 최영택 목사에게 맡기고 1919년 10월 1일 서울로 올라갔다.<sup>23)</sup>

서울로 올라간 로간 부인은 겐소(John F. Genso, 金昭) 선교사의 부인인 마벨(Mabel Rittgers Genso, 김매불, 1882~1957) 선교사<sup>24)</sup> 집에 머

1919년 12월 7일에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선교부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감사하며 우리의 다짐을 표합니다. 첫째, 로간 여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정신으로, 인생 황혼기에 본토 친척, 친구를 떠나 한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과 지혜와 수단을 다하셨습니다. 둘째, 그녀의 참된 신앙과 불타는 열정으로 한국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하고, 믿는 자들의 영혼이 바위에 부딪혀 파산(破散)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에 있는 그녀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영원한 이별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이 결의문 사본을 해외 선교부와 자매인 B. H. Neal 여사와 형제인 Newland Jones와 의붓아들인 신학박사 Sandford Logan과 친구인 Mrs. William Pettitt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결의문의 사본을 선교부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녀의 삶에 대한 스케치를 선교부 파일에 담아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사위원회의 민노아 부인(토티 여사)과 계군 목사]

- 23) Mrs. F.S.Miller(Doty) "Personal Report of Mrs F.S.Miller 1919-1920" *PCUSA Board of Foreign Mission, Korea Mission Report(1903-1957)* (1920. 8. 12)
- 24) 마벨 R. 겐소(Mabel Rittgers Genso, 김매불, 1882-1957, 한국주재 1908~1957)는 미북장로회 한국선교부 재정과 회계업무를 맡고 있던 프레드릭 겐소(John Frederick Genso, 金昭)의 부인으로, 정신여학교에서 영어교사, 아동교육 및 심리학 교사로 봉직하였고 전도 사업과 사회봉사 사업에 진력한 인물이다. 겐소 부부는 관악산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름 휴가철에는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개방하여 선교사 수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의 사택은 오늘날 한국기독교 대표 성지로 자리잡은 서울 연지동 136번지에 있었다. 그들이 사는 사택은 지방 선교사들의 숙소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로간 부인도 겐소 부인 사택에 머물면서 치료받았다. 1921년에는 그 사택이 남장로회 선교사 니스벳과 엘리사벳 위커의 결혼식장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물며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하고 1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기독신보』에 로간 부인의 별세 소식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간 부인 별세 : 청주교회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힘만히 써 주시던 로간 선교사(미국인)는 근일에 경성 련동 겐소씨 댁에 와서 류훤던중 숙가로 인하여 12월 7일 상호 10시 30분에 별세하여 10일에 양화진에 장사하였는데 향년은 63세이라더라<sup>25)</sup>

위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는 로간 부인이 서울 어디에서 유숙하면서 치료받았는지 하는 것과 사망일시와 장례식 거행 날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로간 부인은 1919년 10월 1일에 서울로 올라가<sup>26)</sup> 서울 연동에 거주하고 있는 겐소 선교사 부인집에서 유숙하며 치료받았다.

하지만 끝내 1919년 12월 7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여성교육과 계몽에 헌신하고 청주와 충북인을 사랑하던 로간 부인은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을 통해 천국에 가고 싶다.’<sup>27)</sup>고 늘 말하여 왔는데, 그 말대로, 그의 소원으로 한국에서 별세하여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서울 양화진의 선교사 공원묘지(‘제2 묘역 가-20’)에 잠들고 있다.

그녀는 언니 닐(B. H. Neal) 여사와 넌니(Nannie Jones), 오빠 제임스(James Stone Jones), 그리고 남동생 뉴랜드(Newland Jones), 의붓하들인 스탠포드 로간(Sandford Logan) 신학박사, 그리고 친한 친구

25) 『기독신보』 1919. 12 “로간 부인 별세”

26) Mrs F.S. Miller, “Personal Report(1919-1920)”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PCUSA) Board of Foreign Mission, Korea Mission Reports(1903-1957)*(1920.8.12.)

27) Edwin Kagin, “In Memory of Mrs. J. V. Logan”, *The Korea Mission Field* 1920. 2.) 39쪽에, “She told the Koreans that she wanted to go to heaven by way of Korea” 라는 문장이 그의 소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인 페티트(William Pettitt) 여사를 미국에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sup>28)</sup>

계군 목사와 도티 여사는 둘이서 로간 부인의 죽음 앞에서 다짐한 결의문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로간 선교사의 서거 소식을 미국 선교본부에 알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결의문 사본을 청주선교부 회의록(Station Minutes)에 남기고, 그녀의 삶에 대한 스케치를 청주선교부 파일에 담아 보관하였다.<sup>29)</sup> 그러나 청주선교부 회의록과 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그녀의 삶의 여정을 더 확인하기가 어렵다.

## V. 한글 비석 ‘로간 부인 기념비’ 건립과 의의

로간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1년 반이 될 즈음에 청주읍교회(현 청주 제일교회)와 청주 선교부에서는 충북을 사랑하며 헌신한 그녀의 활동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21년 6월, 청주제일교회 앞마당에 ‘로간 부인 기념비’를 세웠다.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펴던 로간 부인이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몸은 서울 양화진의 선교사 공원묘지에 묻히게 되었으나 청주읍교회 교인들과 청주선교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요, 충북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요, 자애로운 충북의 어머니로 여겨온 로간 부인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서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한 자애로운 충북의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신앙과 사랑을 함께 하고 싶었다. 청주를 비롯하여 충북에서 보인 그녀의 활동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청주읍교회에서는 1921년 6월에 교회 입구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28) Mrs. F.S. Miller & Kagin, “Resolution on the Death of Mrs, J.V. Loga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PCUSA) Board of Foreign Mission, Korea Mission Reports(1903-1957)(1920.4.2.)*

29) Edwin Kagin, “In Memory of Mrs. J. V. Logan”, *The Korea Mission Field*, 1920. 2. pp.38-39.

오늘날도 청주제일교회를 찾아가면 화강암으로 된 높이 1m의 이 비석을 만날 수 있다. 교회 구내의 건물 배치 및 조경 사업의 영향으로 기념비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교회 출입문이 남쪽 시장 쪽으로 나 있었기에 교회 문을 들어와 바로 오른쪽,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졌다. 하지만 주된 출입문이 북쪽이 된 후에는 교회 출입문을 들어서 왼편으로 아름다운 화단이 조성하면서 여러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에 따라 로간 기념비도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 교회 북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를 들어서서 좌측 뜰에 “로간 부인 기념비”가 서 있는데, 이 비는 사방 60cm, 높이 15cm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비신은 높이 100cm, 너비 38cm, 두께 36cm의 직 사면체에 윗부분은 8모각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 비석이다. 비석은 서쪽을 향하여 서 있는데, 정면에 서서 보면 “로간 부인기념비”라 적혀 있고, 북면에 “구주 강생 일천구백이십일년 류월 일립”이라 적혀 있으니 이 비석은 1921년 6월에 세워진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남면에 다음과 같은 59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아메리가 나신부인 묘선에 건너오서  
봉승헌 상태명명 진충갈역 흐엿네  
우리 민족 구원하려 교육구제 힘다히  
십이년 여일종스 묘선별세 텃당으로

[풀이]

아메리카 출신의 부인 한국 땅에 건너오셔서  
 봉승(奉承, 뒷사람의 뜻을 이어받음)한 상제(上帝, 하나님)의 명령에  
 진충갈력(盡忠竭力, 모든 힘을 다 내어 충성함)하였네  
 우리 민족(民族) 구원하러 교육구제(教育救濟)에 힘을 다했으며  
 한국 땅에 머문 십 이년 간 여일종사(如一從事, 한결같이 몸과 마  
 음을 다함) 하다가  
 한국 땅에서 별세하여 천국으로 가셨도다.

이 비석에는 영어나 한자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순 한글로만 비문 59자가 새겨져 있다.<sup>30)</sup> 이 비석의 글은 계군 선교사의 초청으로 청주에 온 이후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가 먹을 식량과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몽매한 여성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던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로간 선교사를 잘 묘사한 명문장이라 생각하며, 이는 여러 역사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이 비석은 한국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는 점이다. 한글 비석이라 하면 대체로 해방 후에나 보이고 있으나, 청주제일교회 앞마당에 있

30) 이 비문은 원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인용문에는 편의상 편의상 띄어쓰기했다. 그리고 비문의 첫 부분 “아메리거나신부.” 라는 부분을 잘못 띄어 읽으면, “아메리거나 신부”, 또는 “아메리카의 나 씨 성을 가진 신부” 로 잘못 읽기 쉽다. 더욱이 이 부분에서 “신” 자가 다른 글자보다 조금 크게 각인되어 있어 오독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교회가 있는 터를 천주교에서는 순교지라 하여 중시하고 있는데, 천주교의 순교지 및 유적지를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청주제일교회와 이곳 로간 부인 기념비를 다루었다. 크리스천 출판사의 『한국의 성지-순교자의 발자취-』(1988년 간) 91쪽에 ‘로간 부인 기념비’ 사진과 ‘망선루’ 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청주제일교회 예배당’ 사진이 실려 있다. 그 면에 로간 부인 기념비를 “미국인 나 신부 선교비” 라고 소개하면서 로간 부인의 기념비를 천주교 신부의 기념비로 오해하고 있다. 아울러 천주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순교지에 세워진 청주제일교회를 소개하는 난에서도 “지금은 감리교 제일 교회가 있고 마당에는 미국인 나 신부가 선교했다는 비석이 남아 있다” 라고 하여 로간 부인기념비가 서 있는 청주제일교회를 감리교회의 ‘청주제일교회’ 로 잘못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는 ‘로간 부인 기념비’ 는 일제 강점기인 1921년에 세워진 것으로, 한국 최초의 한글 비석, 가장 오래된 순수한 한글 비석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 하면, 서울 노원구 하계동(한글비석로 202)을 연상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최초의 한글 비석이’ 라는 ‘이운탁(李允濶)의 한글 영비’ 가 있기 때문이다. 이 비는 조선 중종 때 승정원 부승지를 지낸 이문건(李文楗, 호는 묵재, 默齋, 1494~1567)이 1536년에 아버지 이운탁의 묘를 이전하여 어머니 고령 신씨 묘와 합장한 후 묘비를 세우고, 거기서 70·80m 떨어진 입구에 한글로 된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한글이 새겨진 비석이라 하여 ‘보물 제1524호’ 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연유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2동에서 시작하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경유하여 노원구 상계8동으로 이어지는 총거리 약 5.9km의 도로명을 ‘한글비석로’ 라 명명하였다.

그런데 한글 비석이라는 영비에 대하여 좀 더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영비’ 는 양반 집 묘소, 곧 이운탁 부부 합장묘 바로 앞에 있는 비석이 아니다. 이운탁과 부인 신씨의 합장묘 앞의 실제 비석은 순 한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묘역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묘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묘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묘역 입구 논가에 영비를 세우고 거기에 경고문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를 현대어로 풀어 본다면 “靈碑라(영한 비라). 거운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는 글(한자) 모르는 사람더러 알리노라” 고하는 경계의 글이다. 묘나 비석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은 재화를 입을 것이니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실제 묘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입구, 논둑에 세워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비석에는 맨 윗부분에 “靈碑” (영비, 신령한 비)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 고어체 한글로, “영한 비라 거운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는 글 모르는 사람더러 알리노라” 라고 내려쓰기를 했다. 그러므로 이 경고문은 ‘로간 부인 기념비’ 처

럼 순수한 한글로 된 비로 보기는 어렵다.

양반사회에서 한글을 언문이라 하여 천시하고 있던 16세기, 접근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문이라 하더라도 훈민정음이 외면당하고 있던 당시에 한글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이운탁 영비는 로간 부인의 공적을 기리고 있는 ‘로간 부인 기념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문경새재 조곡관 부근에 가면 문경 지방문화재 “산불도심”이라 쓰인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의 서쪽면에 ‘산불도심’ (‘조심’을 ‘도심’으로 표기함)이라는 순 한글 글자를 세로로 큼지막하게 새겨 놓았다. 산불 조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세운 비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경수호와 산성 등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산불을 조심하는 것이 우선되었고, 이를 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글비를 세운 것이다. 영·정조 시대나 구한말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순수 한글비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으나, 이것 역시 표지석이라는 점에서 로간 부인 기념비와는 성격이 다르다.<sup>31)</sup>

31) 이 외에 한글로 된 몇 개의 비석문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위치한 인흥군묘 표석이다. 인흥군(仁興君)은 선조의 제12왕자 이영(李瑛·1604~1651)으로 묘지 앞에 비석이 있고, 그의 묘역 입구에 표석을 세워두었다. 묘역 입구의 표석 4면에는 모두 한문으로 이영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북쪽 면에는 한문으로 된 비문을 적고, 그 하단부에 5행으로 ‘이비가극히녕검하니생심도사람이거오디말라’라는 20자의 한글을 새겨놓았다. 한글 고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 비가 극히 영검하니(영묘한 위력이 있으니) 생심도(어떠한 생각으로라도) 사람이 거오하지 말라(거만스럽고 오만한 태도로 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순수한 한글 비석이라 보기는 비문 끝에 이 묘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한글로 첨가해 놓은 것이다. 인흥군묘는 1682년(조선 숙종 8년)에 건립되었으므로, 이 인흥군묘 표석은 그 이후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한글 비석으로는 경남 진주 의곡사에서 한글 비석을 볼 수 있다.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자락 의곡사 입구 오른쪽 산밑에 세워진 비석이다. 여기에는 한자로 “父母生天目連經 南無阿彌陀佛塔” 쓰여 있고, 옆에 한글로 “부묘성천목연경”이란 글이 함께 새겨져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가 ‘丙辰年(병진년)’이라 써어 있기에, 연구자들은

그러므로 ‘이운탁 영비’ 나 문경새재의 ‘산불도심’ 은 ‘로간 부인 기념비’ 와는 외형상, 성격상 차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로간 부인 기념비는 그 비석이 함유하는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문화유산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비문에는 한문이나 국한문 혼용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로 되어 있던 그 당시에, 비문의 ‘봉승(奉承)’, ‘진충갈력(盡忠竭力)’ 등 한문 투 말씨까지도 모두 한글로 표기했으며, 그런 비석이 바로 교회 마당 뜰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글과 말을 지키려 하였는가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잘 알다시피 한국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에도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 하면서 한글 운동에 앞장서 왔다. 성경과 찬송가 및 각종 교리서들을 한글로 번역·보급하고, 사경회 때는 교회에서 한글 강습도 겸했기 때문에, 교회는 한글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일제 강점기에 활약하던 한글학자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주시경, 이운재, 김윤경, 정인승, 최현배 등 저명한 한글학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분위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청주읍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고, 사경회 또는 야학을 운영하면서도 교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전도지의 사도’ 라 불리는 민노아 선교사도 순한

---

이 비석의 연대를 ‘1736년’, ‘1796년’ 의 병진년 중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이 비석 역시 한문과 한글이 함께 있는 비석이므로 로간 부인 기념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에도 한글로 표현된 비석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 지바현 다테야마(館山) 시에 다이간인(大巖院) 사찰에 있는 비문이다. 사찰 정문에서 법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2m 19cm 크기의 ‘다이간인 사면 석탑’ 이 서 있다. 탑 사면에 인도 범어, 중국 한자(전서), 일본식 한자(해서), 그리고 중세 한글로, 각각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이 석탑은 1624년에 야마무라 모헤이(山村茂兵)가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지바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순수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문자 가운데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이다.

글로, 서로 내용이 다른 낱장 전도지를 여러 차례 제작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시장을 찾아다니며 배포하도록 하였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일제가 우리의 말과 글을 탄압하던 당시,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자체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여겼다. 그렇기에 일반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한글 운동을 교회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는데, 로간 부인 기념비는 기독교와 한글 운동과 민족운동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sup>32)</sup>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자랑스러운 유물이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셋째, 이 비석을 세운 주체 세력은 부인전도회, 곧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 비석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 당회가 주관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인전도회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문이 순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비석의 비문은 영문자가 들어가기 일쑤이고, 한자나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이다. 당회가 중심이 되어 이 비석을 세웠다면 로간 선교사의 이름은 영문자가 들어갔을 것이고, 내용에도 국한문 혼용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비석을 세운 주체의 권위로 여겨졌다.

그런데 여기 비문은 순 한글로 적어 놓아 여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아서 부인전도회가 세웠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힌트는 금산교회 상량문에서 얻었다. 잘 알다시피 ‘ㄱ’ 자 교회이며 한옥으로 된 유명한 교회는 김계 금산교회이다. 이 교회의 천장 상량문을 보면, 남자 좌석은 한문으로, 여자 좌석은 한글로 되어 있다. 남자 좌석의 상량문은 상량 올린 날짜를 표기하고 그

32) 전순동, 『충북기독교백년사』 충북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02), pp.690-691. 한국 기독교는 일제 때에도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면서 한글 운동에 앞장서 왔다. 성경과 찬송가 및 각종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 보급하고, 사경회 때는 교회에서 한글 강습도 겸했기 때문에, 교회는 한글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모두 한자로 적어 놓았다. 반면 여자석의 상량문은 역시 상량 올린 날짜를 표기하고 순 한글로 고린도 전서 3장 16~17절 말씀을 빼꼭히 적어 놓았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로간부인 기념비는 이 비석을 세운 주체가 여성들, 곧 부인전도회였기 때문에 순 한글로 기록된 것이라 확신한 것이다.

넷째,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와 활동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곧 부인전도회가 중심이 되어 로간 부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청주읍교회는 일찍이 ‘부인전도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에 “1913년에 청주읍교회에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전도 사업에 주력함으로 교회에 다대한 비익(裨益:도움과 이익)이 있게 되다”<sup>34)</sup> 라는 기록이 보인다. 청주읍교회는 이때 이미 부인전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부인전도회는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교회(장대현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였고<sup>35)</sup>, 이후 장로교 각 교회에서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에 힘쓰고 교회 개척에 나섰는데, 청주에서는 1913년에 청주읍교회가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로간 부인, 도티 여사들이 크게 활동하던 시기로, 특히 여성교사들은 부인전도회 조직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부인 전도회 조직에는 로간 부인, 도티 여사, 계군 선교사 부인 존슨(Mary Francis

33) 전순동, 2018, 『한반도 중심에 심겨진 복음, 충북노회 105년사』한국장로교출판사, pp.78-79.

34) 1968,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한국교회사학회, p.80.

35) 최초의 부인전도회는 1898년 2월 평양의 장로교 널다리골(板洞)교회(장대현교회)에서 설립한 부인전도회이다. 마펫(S. A. Moffet, 馬布三悅)선교사가 평양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1898년에 이신행을 중심으로 신반석, 박관선, 김성신 등이 전도를 목적으로 부인전도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1인당 엽전 한 닢씩을 전도비로 헌금하여 전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부인전도회의 시초이다. 이 부인전도회에서는 전도인을 파송하여 초기 교회 설립에 공을 세웠다. 이후 장로교 각 교회에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에 힘써 교회를 개척하였다.

Johnson) 여사, 국유치(W.T. Cook, 鞠裕致) 선교사 부인 햄필(Maud Hemphill) 여사, 퍼비언스, Walter Charles Purviance, 芙班瑞) 의료선교사의 부인 바이람(Lula Alma Byram) 여사, 그리고 데이비스(Grace Lucille Davis) 양 등의 여성교사들은 좋은 조력자였다.

이때 부인전도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여성은 의병 출신인 배창근의 부인이요, 농촌운동가이며 청주읍교회 출신인 배민수 목사의 어머니 장희운 여사가 선임되어 활동하였다.<sup>36)</sup>

부인전도회의 조직은 그동안 가정에만 갇혀 있던 여성들로 하여금 집단생활의 경험을 갖게 하였다. 전도회를 통해 회의법을 익히고 사회성도 개발되고 서로 유기적 연대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교육과 훈련, 전도 경험을 통해 여성들의 지도력이 강화되어 청주읍교회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부인전도회의 출현은 가정 내의 개별적 존재였던 여성이 자신들이 조직 운영의 담당자가 됨으로써 여성들의 주체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기회를 얻게 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충북 여성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교회가 그러했듯이, 청주제일교회도 초창기부터 예배당 안에는 강단에서부터 뒷좌석까지 길게 휘장을 쳐 남녀좌석을 구분하였다. 강단을 향하여 오른쪽은 여자석, 왼쪽은 남자석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 광목으로 휘장을 만들어 자리를 구분하여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남녀가 유별한 유교적 통념과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서양 문화가 교회 내에 은연중에 조화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 가운데 비석이 세워지기 1년 전인 1920년에 청주읍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 남녀좌석을 구분하던 휘장이 걷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일로, 예배당 내의 휘장 철폐(1920), 순 한글로 된 로간 부인 기념비 설립(1921), 그리고 청주여

36) 배민수 저, 박노원 역, 1999, 『배민수 자서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p.63.

자기독청년회 조직(1922)<sup>37)</sup> 등 일련의 사건은 청주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의 권위 및 위상의 고양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31운동 이후, 남녀유별이라는 개념보다도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을 우선하는 사회적 풍조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보다도 교회 내의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그만큼 고양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1920년대 들어와 청주지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서서히 여성의 권리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여자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갔는데, 이런 사회 변화의 기반 확충에는 로간 선교사, 민노아 선교사 부인인 도티 여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 VI. 맺음말

이상, 로간 부인이 내한하게 된 배경, 로간 선교사의 사역 활동, ‘로간 부인 기념비’ 건립 배경과 그 의의 및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이 기념비의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난 과거 사실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향한 지혜이다. 그런데도 충북교회와 여성교육과 근대 여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로간 부인의 주님 사랑 및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냥 숨겨지고 있는 것 같아 마냥 아쉬운 감이 들었으나 최근 로간 부인 기념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가을(2022. 10),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에 있는 로간 부인의 묘비 복제품이 제작되어 일신학원 내 선교사 묘역 동산에 건립되었고, 청주시에서는 로간 부인 기념비를 ‘청주시 향토 유형유적 165호’로 지정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은 로간 부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정신

---

37) 전순동, 2007, 「1920년대 청주지방 기독교와 사회문화」 『인문학지』(충북대) 34집, p.49.

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데서 반가운 일이다.

여성교육과 복음화에 헌신한 로간 여선교사의 사역과 청주제일교회에 있는 로간부인기념비를 다루면서 얻은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로간 부인이 청주에 와서 충북인을 위해 활동하게 된 것은 계군 선교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계군 선교사는 컨테키 센트럴대학에서 YMCA 회장으로 있을 때, 대학 총장 부인인 로간 여사의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아 온 사이였다. 이런 관계로 계군 선교사는 목포·광주에 와 있던 로간 부인을 자신이 속한 청주선교기지의 선교사로 요청하였고, 로간 선교사도 거기에 부응하여 청주선교기지로 옮겨 와 10년간(1909~1919),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로서 충북 여성 교육에 힘썼다.
- 2) 로간 부인 기념비는 조심스럽게 한국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 평가하고 싶다. 최초의 한글 비석으로는 경기 남양주시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늘날은 서울로 편입된 노원구 하계동 산12번지(한글 비석로 202)에 ‘최초의 한글 비석이’ 라는 ‘이운탁(李允濶)의 한글 영비’가 있다. 1536년에 세워진 이 돌비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한글이 새겨진 비석이라 하여 ‘보물 제 152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비’는 묘소 앞에 있는 비석이 아니라, 묘소의 훼손을 막고자 하여, 묘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 가에 세운 돌비에 경계의 글을 적어 사람들이 함부로 묘역에 접근하여 훼손하지 못하도록 한 경고비이다. 이 돌비는 순 한글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맨 윗 부분에 ‘靈碑’(영비)라는 한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로 고어체 한글이 있으니, ‘이운탁 영비’와 ‘로간부인 기념비’와는 외형상, 성격상 차원이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국내에 있는 기념비를 포함하여 순 한글로 작성된 것은 로간부인기념비가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다.
- 3) 로간 부인은 교육과 계몽에 헌신한 충북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

자이다. 그녀가 한국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한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충복을 사랑하며 여성 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독교 여성 교육의 중심인 여성주일학교, 여자 사경회 모임, 그리고 여성 지도자 양성반 등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또한 로간 부인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여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즐겨 보내었는데, 그의 집은 자신의 가치관, 특히 기독교 신앙을 넘어 서구의 학문과 교양을 지역 여성들에게 전수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도티 여사와 함께 충북 여성 교육의 선구자라는 업적을 드러냈다. 그렇기에 그녀를 표현하는 데는 ‘한국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 ‘충북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준비된 자애로운 충북의 어머니’ 등 여러 수식어구가 붙는다. 청주에 와서 사역한 많은 남녀 선교사가 있지만, 오직 그녀만이 그녀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녀의 충북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다.

- 4) 로간 선교사를 부르는 호칭도 흥미롭다. 그녀를 칭하는데 ‘부인’이라는 점이 눈 여겨진다. 그녀는 여성교사인데, 사람들은 로간을 ‘선교사’라 칭하기보다는 ‘로간 부인’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외국인이라는 이질감, 객관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선교사’ 보다는 소박하고 다가가기 쉽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정감 있는 ‘부인’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총장의 아내였던 로간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53세에 영예와 부, 보장된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을 떠나 먼 길을 배를 타고 고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무지몽매한 한국을 찾아왔다. 기독교 여성들은 그녀의 너그러운 인격과 자애로움과 겸손과 보살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자애로운 충북의 어머니”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비석에도 ‘로간 선교사 기념비’가 아니라 ‘로간 부인 기념비’

라 한 것으로 여겨진다.

5) 로간부인기념비의 건립은 충북 여성사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낸 변곡점이 되었다. 로간 부인 기념비는 최초의 한글 비석이라는 유구성과 독창성 외에 충북 여성사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 비석은 교회 지도자급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당시 교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상이 그만큼 확대되었고, 동시에 충북 지역 여성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간 부인 기념비’는 단순한 종교적 유산의 범주를 뛰어넘어 여성사, 사회 문화사, 충북의 새로운 근대적 질서의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기억하고 공유하며 세인들이 더욱 사랑해야 할 중요 문화유산이다.

6) 백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로간 부인 기념비는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문화유산의 존재성과 진정성과 완전성이 잘 확보된 유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성, 완전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충북지방의 여성 권위 신장, 남녀평등, 기독교와 한글과 민족과의 관계, 새로운 근대 정신이 잘 융해되어 있다. 특히 낯선 이국땅에 와서 헌신적으로 베푼 그녀의 그리스도 사랑 실천은 인간적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로간 부인의 기념비는 이런 여러 요소를 함유하고서, 오늘의 우리에게 사랑과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계속 뿜어내고 있으니, 로간 부인 기념비는 탁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지역의 특수성을 함께 지닌 귀중한 문화재이다.

문화 유적 및 유물은 단순히 과거 흔적이니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사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발현될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로간 부인 기념비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와 그 의의가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 지역, 기독교계 차원에서 함께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호 관리, 그리고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크게 요구된다.

로간 부인 기념비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과 의미를 되새겨 오늘을 이해하고 바른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우리 몫으로 남아 있다.

**【Abstract】**

**Educational Endeavors and the Commemorative  
Monument of Mrs. Logan, a Missionary in Cheongj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eon, Soond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ducational initiatives led by Mrs. Logan and her commemorative monument in Cheongj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Missionary Mrs. Logan (J. V. Logan, Mary Lee Logan, 1856.9.17.~1919.12.7.), hailing from Kentucky, belonged to a distinguished family. Her contributions included teaching at the Men's and Women's Christian Youth Association at Kentucky Central University, engaging in social service, and fostering the youth movement. She was instrumental in inspiring young people to dream and envision a better future, while also teaching college students in a church setting. Her students included Eugene Bell(裴裕祉) in Mokpo, Pastor Oh Geung-seon(吳肯善) in Gunsan, and missionary Edwin H. Kagin (桂君) in Cheongju.

At Kentucky Central University, Mrs. Logan's interest in overseas missionary work burgeoned. She arrived in Mokpo in 1907 to preach the gospel and later, in 1909, relocated from Mokpo and Gwangju to Cheongju in Chungbuk Province, influenced by her deep connection with missionary Edward Kagin. During their tenure at the university, where Mr. Kagin

chaired the YMCA, Mrs. Logan provided significant support and care, leading to her eventual invitation to Cheongju by missionary Kagin. For a decade (1909-1919), she dedicated herself to women's education in Chungbuk Province as a missionary at the Cheongju Station.

Mrs. Logan's life was devoted to mentoring young students in Kentucky. In Cheongju, she served as a self-reliant missionary, independently spearheading evangelization efforts without external support. She was Korea's first self-serving missionary.

At 53, Mrs. Logan arrived in Cheongju and diligently studied Korean, excelling in both spoken language and elegant handwriting. She traveled to rural villages, focusing on missionary work and women's education in Chungbuk Province. Her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to Koreans encompassed not only biblical education but also women's leadership training. Consequently, Chungbuk women were awakened to new perspectives, igniting their societal aspirations and leadership roles, notably in churches and the broader community.

Her home became a sanctuary for those weary in body and spirit, where she was revered as a compassionate and nurturing figure. Her dedication to education and missionary work was fueled by a profound faith and fervent passion for the people of Chungbuk Province.

Mrs. Logan passed away from exhaustion on December 19, 1919, at 63, deeply loving the people of Cheongju and Chungbuk Province. Her desire to “go to heaven through Korea” was fulfilled as she passed away in the country she

loved. She rests at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in Seoul.

A year and a half after her passing, the Cheongju-eup Church (current Cheongju First Church) and the Cheongju Station erected the 'Mrs. Logan Monument' in June 1921, in recognition of her impactful work. This monument, inscribed with 59 pure Korean characters, stands as a testament to her legacy.

This monument holds several significances. Firstly, it is the inaugural monument in Korea composed entirely in Hangeul. While Lee Yun-tak(李允灌)'s spiritual inscription in Hgae-dong, Seoul, was previously considered the first, it contains Chinese characters, thus, Mrs. Logan's monument takes precedence as a pure Hangeul creation. Secondly, its establishment, led primarily by the Women's Evangelical Society rather than a church board, emphasizes women's pivotal role and the choice of Hangeul for accessibility. Thirdly, its presence in a church yard illustrates the interplay between Christianity and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marking a shift towards gender equality in Cheongju's sociocultural landscape. Lastly, its construction marked a transformative moment in the history of Chungbuk women.

Today, the over-a-century-old Mrs. Logan Monument remains a well-preserved cultural relic, symbolizing women's empowerment, the intersection of Christianity and Korean identity, and modern ideals. Mrs. Logan's love, commitment to Christ, and humanistic values continue to inspire. As such, the monument is a precious cultural asset, embodying

universal human values and regional uniqueness.

Mrs. Logan's legacy, encapsulating roles as 'The First Self-Serving Missionary in Korea,' 'Modern Women's Education Pioneer in Chungbuk Province,' and 'Benevolent mother,' stands unparalleled. Her monument in Cheongju, singular in its commemoration, reflects her profound love and dedication to the people of Chungbuk Province.

주제어 : 로간, 선교사, 여성교육, 청주, 한글기념비, 근대문화

Keywords : Logan, Missionary, Women's

Education, Cheongju, Korean(Hangul)

Monument, Modern Culture